

환동해지역 가정신앙 고찰: 현존하는 액막이 풍습을 중심으로*

김석희**

| 목 차 |

- | | |
|-------------------|--------------------|
| I. 서론 | 3. 콩 뿌리기 - 마메마키 |
| II. 환동해지역의 액막이 풍습 | III. 미신의 발견에 대한 재고 |
| 1. 쭈 | IV. 결론 |
| 2. 소금 뿌리기 | |

| 논문요약 |

인간의 두려움인 동시에 인간의 두려움을 위로하던 샤머니즘은 근대 이후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민중에게 과학이 줄 수 없는 위안과 현대과학이 도달하지 못한 지평을 직관으로 통찰하기도 한다. 한국의 '고수레', 중국의 불 속에 소금 던지기, 일본의 '마메마키', 시베리아의 쭈으로 루살카 쫓기 같은 행위들은, 이제는 풍속의 영역에만 남아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영화나 문학 서사 안에서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액'이나 귀신을 막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을 이 샤머니즘 행위들은 더 이상 샤머니즘의 영역이 아니며, 일상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문화적 전통의 콘텐츠화 영역에 존재한다. 미신은 처음부터 미신이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 이전에는 사회적 개연성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던 샤머니즘의 영역이며 자연과 교류하고 공감하는 전통의 방식이었다. 근대 초기에 급진적인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환동해지역의 샤머니즘은 '과학'과 '문명'의 반대말로 '발견'되면서, 동시에 '타파'의 대상이 되었고 급속도로 사라져 갔다.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HK연구교수.

최근 시베리아의 유전개발 등, 일련의 ‘개발’과정은 ‘문명’이 샤머니즘이 물러난 자리를 채운 가장 좋은 예 중의 하나이다. 샤머니즘이 자연과의 교류였음은, 그것이 사라지면서 시베리아에서 오랜 세월 순록과 더불어 유목 생활을 하던 이들이 자연의 파괴자로 나서고 있는 현상 속에서 목도된다. 샤먼과 더불어 자연을 아끼고 그 안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던 정신까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주제어: 미신의 발견, 미신 타파, 액막이, 가정신앙, 환동해지역

I. 서론

한국, 일본, 시베리아와 동북3성을 포함하는 환동해지역의 샤머니즘이 선사시대로부터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인 김열규(2000, 1)는 이 지역이 인종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교류가 먼 ‘동북아세아’ 지역의 문화적 보편성으로서의 샤머니즘을 제시한 바 있다.

오랜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의 두려움인 동시에 인간의 두려움을 위로 하던 샤머니즘은, 근대 이후 미신(迷信)이라는 이름으로 추방당하였다. 최근까지 영적 접촉이 가능한 ‘진짜 샤먼’이 존재했다고 하는 시베리아의 경우에도 구소련과 러시아의 지배체제 속에서 많이 사라졌다(이상화, 2011, 239). 한국의 경우에도 아직 무속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과학의 사이드로 밀려났다.

‘미신’이라는 말은 흔히 ‘비과학적인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 미신이란 원래 영어 ‘superstition’의 번역어로, 첫째, 비합리적 신앙 또는 행위이며 둘째, 주관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사용되며, 셋째, 뜻이 모호한 것이다. 교리나 신조가 없는 비조직적이고 불합리하고 허황된 믿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속신(俗信) 중 사회생활에 해를 입히고 도덕에 저촉되는 주술적인 요소가 짙은 맹신 자체를 미신이라고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점이나 예언(divinations), 주문(spells), 치유(cures), 징조(signs and

omens), 종교적인 의식(rituals), 금기(taboos) 등이 이에 속한다. 일본 헤이안시대의 미신 범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토착신앙(spirits of native derivation), 외국의 귀신(imported demons),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동물(animals endowed with supernatural powers)이 그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은 대략 유사종교로 인식되며 ‘무속’이나 ‘미신’이라는 말은 손금, 사주, 관상, 굿과 같은 일련의 단어들을 연상시킨다. 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사종교적 행위나 세시풍속은 부끄럽고 수치스런 것으로 인식되어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이제영 2008, 30-32).

그러나 미신은 민중에게 과학이 줄 수 없는 위안을 주기도 하며, 현대 과학이 도달하지 못한 지평을 직관으로 통찰하기도 한다. 그 기원을 막론하고 과학이나 합리성과는 별개로 우리 생활 속에 선형적으로(선택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관습, 풍속, 또는 문화로서의 미신도 있다. 현대에는 그런 미신풍속들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도 한다.

쭈이나 소금처럼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식료품과 관련된 가정신앙들은 아직도 풍습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재수 없는 사람이 다녀간 뒤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고, 일본은 세쓰분(節分, 입춘 전날)에 ‘귀신은 나가고 복은 들어오라(鬼は外、福は内)’고 외치며 콩을 던지는 풍속이 있으며, 시베리아지역에는 처녀귀신 루살카(русалка)에게 쭈를 던지면 루살카가 도망간다는 속설이 있다. 이 행위들은 모두 뭔가를 던지거나 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신의 영역은 거의 사라졌지만, 액막이 영역은 아직도 일상생활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생활 미신들이 현존하는 것은 그것들이 무속신앙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인 공감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풍습들은 지금도 많은 문학 텍스트와 영화 텍스트에 남아 있다. 본고는 다양한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환동해지역의 상징적인 액막이 행위로서의 미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환동해지역 액막이 풍습

1. 썩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에는 일본의 수많은 신과 요괴들이 등장한다. 인간의 환경 파괴로 만신창이가 된 ‘강의 신’이 센이 일하는 유야(湯屋, 온천장)에 찾아오는데, 주인공 센이 ‘강의 신’의 욕조에 넣은 것은 다름 아닌 썩(コモギ) 성분이다.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진물이 흐르던 ‘강의 신’이, 썩탕에 몸을 씻은 후 수많은 고철과 무기와 인간이 강에 버렸던 수많은 오물들을 모두 토해내고 개운해진 몸으로 날아간다(宮崎駿 2001).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 전반에서 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장면 자체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며, ‘강의 신’이 던지는 메시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관중에게 던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강의 신’을 치유하는 요소로 썩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썩이 가지는 주술적 힘을 표현한 것이라 사료된다.

썩은 단군신화에도 등장하는 명약이다. 마늘과 더불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드는 공을 세운 약초이다. 썩은 곰이 마늘과 함께 먹으면서 어둠을 견뎌낸 영험한 약초로 등장한다.

이때에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 신통한 환웅에게 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원했다. 이에 신 환웅이 영험스러운 썩 한 줌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말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쬐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곰과 범이 그것을 받아먹었는데 곰은 가르친 대로 스무하루 동안 금기(禁忌)한 끝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하여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삼국유사』 중에서(일연 2009, 37-38)

한국에서는 단옷날에 쭈을 캐서 말렸다가 해산을 하거나 아기를 씻길 때 사용하면 부정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쭈은 또 창포와 함께 단오 풍속의 필수품이다. 고려가요 「동동(動動)」에는 “수릿날 아침 약(藥)은/즈른 헬 장존(長存)하살 약(藥)이라 받잡노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의미는 단옷날을 맞아 ‘천년을 장수할 약을 바치겠다’는 뜻이다. 이날 준비한다는 약은 쭈이다. 중국에서는 여인들이 단옷날 쭈을 머리에 꽂는다. 한국과 중국은 쭈을 가지고 호랑이모양을 만들거나 쭈인형, 쭈꽃 등을 만들어 대문에 걸어 두었다. 이것은 액과 잡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관습이다. 일본도 쭈을 다발로 만들어 문 위에 매달거나 침실에 놓아 귀신을 쫓고자 하였다(안광선 2012, 103).

이건욱(2003)의 루살카에 대한 현지조사에 의하면, 시베리아에서는 귀신 ‘루살카’를 쫓아내는 수단으로 쭈이 사용되었다. 루살카는 물과 숲, 그리고 들과 관계 있는 여성성을 지닌 신화적 존재이다. 드보르 작의 유명한 오페라 『루살카』가 마치 인어공주와 같이 아름다운 숲의 정령으로 루살카의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현재의 루살카 상에는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가 덧씌워졌지만, 사실상 루살카의 모습은 딱히 아름다운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루살카’라는 말도 현대 매스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으로 실제 러시아의 전 지역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지만, 19세기 이전에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이다. 루살카는 러시아 전역에서 보고되는 민중들의 ‘귀신’이다. 19세기의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이칭으로는 ‘베레기냐’, ‘빌르이’, ‘땡까’, ‘슈땡까’ 등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대체로 죽은자, 물, 간지러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루살카는 사람을 간질여서 죽인다). 루살카를 퇴치하는 주술사의 주문은 대개 일반 사람들이 흉내 내기 어려우며 내용도 주술사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대화식의 퇴치법도 있다. 길을 가다보면 루살카가 말을 걸어올 수 있는데, 보통 루살카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 “쭈이나, 네덜란드 산 미나리냐?” 이때, “쭈” 이라고 대답하면 루살카는, “너! 저리 꺼져!”라고 말하고 도망간다. 이때 쭈을 루살카의 얼굴에 정면으로 던져버리면 그 사람 주위에는 평생 얼씬도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나리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루살카에게 잡혀간다(이건욱

2003, 197-209). 다만, 이 시베리아지역의 루살카 이야기는 러시아 서부지역의 루살카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살카 이야기는 대부분 안테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인어아가씨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며, 드보르 작의 오페라 역시 비슷한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세기 이전에는 루살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시베리아의 루살카 이미지는 토속적인 귀신의 이미지와 동유럽 인어아가씨 설화가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조안나 러스 2009, 18-23).¹⁾

러시아의 루살카 민담은 푸시킨의 미완성 희곡 『루살카』에 잘 그려져 있는데, 영주와 사랑을 나누었던 방앗간 처녀가 배반을 당하자 드네쁘르강에 투신하게 되고, 물의 요정(혹은 물귀신) 루살카가 되었다는 것이다(권철근 2007, 5). 그 모습은 대략 마르고 창백하며 몸이 희고 초록색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루살카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물속으로 사람을 끌어들이 죽이기도 하는데 특히 총각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루살카는 열병이나 수종을 동반한다. 루살카는 주로 ‘루살나야 주간’에 활동하는데, 러시아인들은 그 부적으로 쑥을 사용한다(이건욱 2003, 201-208).

아시아지역에서 쑥을 이용한 역사는 아주오래 되었다. 중국의 고문헌에는 시경(詩經, B.C 500~900)에서 채소의 종류 중 쑥을 열거한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는 고려의 고종 때 편찬된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1236), 『지봉유설(芝峯類說)』(1614) 등에 떡에 쑥을 약용과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식물로 소개한 바 있다. 이성동 등의 논문에 의하면, 쑥은항염증 및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다. 쑥이 함유하고 있는 *A. asiatica*와 *A. elata*에서 분리한 eupatilin과 araloside가 항위염, 항궤양성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도도

1) 최근에 루살카를 소재로 한 텍스트 중에서는 조안나 러스가 재구성한 「루살카 혹은 보헤미아 해변」이 인어아가씨 이야기를 탈구조적으로 패러디하고 있다. 루살카의 미끄덩거리는 바다냄새와 보헤미아 왕자의 사람냄새를 서로가 견디지 못해 불행해 한다는 극히 현실적이고도 냉소적인 설정들이 편재하는 이 텍스트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는 악의 존재인 마녀를 ‘과학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꺼풀에 물고기처럼 하얀 막이 있다거나 머리카락이 연녹색이라거나 코가 납작하다거나 하는 이미지는 시베리아의 루살카 이미지와 매우 비슷하다.

있다. 당뇨와 고혈당에 대한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여러 식물들이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중에서도 쑥의 항균활성은 더 강력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한편, 쑥의 성분 중에는 항균성분과 함께 다른 동물이나 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선충류에게 독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동 외 2000, 198-500).

2. 소금 뿌리기

문명이 시작된 이래 소금은 값비싼 것으로서 삶을 유지하게 하고 불운을 막아주고 정결하게 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는 소금을 불에 뿌려서 소금이 튀어나올 때 나는 소리로 액을 막았다. 특히 몽골족, 하자크족, 티벳족, 만주족 같은 북방 소수민족들에게서 이런 풍속을 찾아볼 수 있다는 조사가 있다(孫衛春 2007, 105-107). 중국의 소금 생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800년경의 것이며 해염의 생산과 무역에 대한 기록은 1000년 전 하 왕조부터였다. 오지 항아리에 바닷물을 담아 끓이고 졸여서 소금의 결정을 만들어냈는데, 이 방법은 1000년 후 로마 제국이 남유럽 전역에 퍼뜨린 기술이었다(마크 쿨란스키 1992, 29). 소금은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야채(중국의 차카이, 일본의 쓰케모노, 한국의 김치)를 제공했다. 중국인들은 계란을 소금에 저장한 다음 운송함으로써 까다로운 계란 운송의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계란을 한달 남짓 소금물에 담근 다음 소금에 절인 진흙이나 짚으로 감싸면 밝은 주홍색 난황을 가진 계란이 완전히 익힌 것만큼 단단해져서 잘 깨지거나 썩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여기에 소금과 재, 잿물, 차를 이용해서 ‘천년 묵은 계란’을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여 일, 그리고 다시 100일간 보존가능하다(마크 쿨란스키 1992, 33-35).

서양에서는 대체로 소금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으로 소금을 건드리는 것은 무례한 것이며 때로는 불운을 부른다고 믿었다(마크 쿨란스키 2003, 160). 결혼식 피로연에서 소

금을 흘뜨리면 결혼생활이 힘들어지며, 설날 그믐날 소금을 흘리면 다음 해가 실수와 허물로 가득해진다고 믿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세기 미국의 가정에서는 소금 그릇을 보석함처럼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다는 기록이 있다(발터 게를라흐 2009, 178; 286).

그리고 동양, 구체적으로 환동해지역에서는 대부분 소금을 ‘뿌림’으로써 액을 막는 풍속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른바 재수 없는 손님이 지나간 뒤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며 ‘고수레 고수레’ 하고 외치는 풍속이 있다. 물론 그것이 소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막아야 할 액운에 대한 강력한 감정적 대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가미오 요코(神尾葉子)의 연재만화가 드라마로 제작되어 히트한 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꽃보다 남자』(2009, SBS)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재벌가의 남자주인공과 일반인의 신분으로 귀족학교에 다니게 된 평범한 여학생의 로맨스를 그린 이 드라마는 아시아 각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드라마에는 남녀주인공이 서로 좋아하게 되자, 남자주인공의 어머니가 여주인공의 집을 찾아와 큰돈을 내밀며 헤어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여주인공의 어머니는 남주인공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금을 뿌리면서 분노를 표현한다.

이 밖에도 현대의 수많은 영상매체와 문학작품 속에서 소금을 뿌리는 풍속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에서 먼저 발생한 풍속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재수 없는’ 기운을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공통적이다. 악귀들은 소금을 싫어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의 전통 극장에서는 악령들로부터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공연 전에 무대 위에 소금을 뿌렸다(마크 클란스키 2003, 19).

3. 콩 뿌리기 - 마메마키

일본의 세시풍속 중에 ‘마메마키(豆まき)’라는 것이 있다. 마메마키는 말 그대로 콩을 뿌리는 것인데, ‘세쓰분(節分, ‘세치분’이라고도 읽음)에 악한 귀신, 혹은 도깨비를 쫓아내고 복을 끌어들이는 의미에서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鬼は外、福は内)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콩을 뿌린다. 이때 사용하는 콩은 간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노란 콩이다.



<그림 1> 호쿠사이
세쓰분의 오니

민담에 의하면, 우다텐노(宇多天皇)시대에 고토의 구라마야마(鞍馬山)에 ‘오니(鬼)’가 나와서 도시를 황폐하게 하자, 오니의 굴을 막고 콩으로 ‘오니’의 눈을 때렸더니 도망갔다고 한다. 콩은 ‘곡물에는 생명력과 액을 막는 주력이 있다’는 신앙, 또는 콩을 던져 액을 쫓아내고 일년의 무병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본인들은 볶은 콩을 던진 다음 자기 나이만큼 먹는다. 자기 나이보다 하나 많은 수의 콩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지역도 있다(鈴木稔, 2009, 74-76). 현재는 하나의 놀이처럼 되어, 세쓰분에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오니 탈을 쓴 사람에게 어린이들이 콩을 던지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콩을 의미하는 한자 ‘두(豆)’는 원래 땅을 소생시키는 잔뿌리를 일컫는 말이었다. 대두는 토양에 양분을 돌려보내고 다른 작물들로 인해 소진된 들판을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영양가가 높아서 인간은 물과 콩, 소금만 가지고도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과 10세기 이후의 일본인들이 항아리 속에 콩을 넣어 발효시키는 과정은 다름 아닌 ‘절임’이며 오늘날 ‘젓산 발효’라 지칭되는 것이다. 젓산 발효의 최적 온도는 18℃에서 22℃ 사이이다. 이것은 대략 한중일 지역에서 장을 담그는 3, 4월의 기온에 해당한다. 일본 민담의 오니가 있는 굴을 막고 콩을 던졌다고 하는 대목은 간장 제조와 상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액막이 풍습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향해 ‘뿌리거나 던진’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향해 세차게 던지거나 뿌리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방어의 의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행위이다. 더구나 그 상대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가상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 두려움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러한 풍습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뿌리는’ 액막이 풍습이 ‘주문’, 즉 ‘말’과 함께 행해진다는 점이다. ‘쭉’, ‘고수레 고수레’,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 하는 외침이 동반된다. 언어가 주술적 요소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오늘날엔 세쓰분이 되면 모든 슈퍼마켓에 ‘세쓰분 코너’가 따로 마련이 되고, 거기에서 후쿠마메(福豆, ‘복콩’이라는 의미)라는 콩을 판매한다. 두꺼운 종이로 만든 빨강 파랑의 오니 가면도 있다.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이 가면을 쓰고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나타나 ‘오니역’을 하면 어린아이들의 마메마키는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마메마키 역시 샤머니즘적 측면보다는 전통의 콘텐츠화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상업화되고 있다.

Ⅲ. 미신의 발견에 대한 재고

앞에서 살펴본 쭉, 소금, 콩과 같은 액막이용 식재료들을 던지는 대상은 귀신으로 형상화된 ‘액(厄)’, 즉 재앙이나 병이었다. 액막이는 자연과 더불어 신에 기대어 삶을 영위했던 선인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우제 같은 샤머니즘 행사가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것인 데 반해 액막이는 ‘적극적으로 그 액운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안광선 2012, 99). 액막이는 초자연적인, 미지의 현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대응법이었던 것이다.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발견되고 ‘타파’의 대상이 되기 전,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다. 무엇보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수치’스런 대상이었던 이들 액막이 미신이 주변의 자연환경을 폭력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소금과 콩은 한중일지역의 대단히 중요한

기초 식재다. 콩을 세차게 뿌려서 액운을 막고자 했던 것은, 음식에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풍속임에 틀림없다.

이제 환동해지역에서 쑥이나 소금, 콩 같은 재료들이 정말 ‘액’을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쑥은 치유기능이 훌륭한 약재이며, 소금과 콩으로 만든 된장, 간장이 사람의 몸에 좋다는 정도의 ‘과학적’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의 미신이 풍속으로서 현존하는 것이다. ‘귀신’이나 ‘오니’, ‘루살카’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액막이 풍속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들은 이미 ‘타파’되어 버린 미신적 존재에 불과하며, 종종 영화나 문학작품 같은 서사적 텍스트 속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등장할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쑥이나 소금, 콩 등은 현대과학의 범주 안에서 매우 항균효과, 저장효과, 영양적 측면 등에서 높이 평가 받는 식재료이다. 지금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액막이 풍습이 전통시대에는 실제적인 효과를 주는 식품으로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술적 의미를 가진 식재료를 ‘뿌린다’는 행위는 뿌리는 자와 그것을 맞는 대상 사이에 거리를 설정하고, 더 이상 그 대상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액막이가 가진 당대의 개연성과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은 모두 무시되고 근대적 관점에 의해 모든 것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환동해문화권의 전통적 문화의식도 사라져 간다.

‘미신’은 근대의 산물이다.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1920년대 신문기사 등을 보면 미신의 개념은 문명에 대한 반대 개념인 미개나 그 산물로 보는 시각이 현저하다. 그것은 구습이나 인습과도 혼용되었으며 과학적 사고방식에 저촉되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도 했다. 미신 타파야말로 근대화의 지름길이라 여겨졌으며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석이라는 견해가 1920년대 동아일보를 위시한 언론 전반에 침투해 있었다. “悲慘한 迷信의 一例, 조부가 알는 까닭에 손녀는 강제로 퇴학, 미신의 종노릇 속히 고쳐라”(동아일보, 1920/04/29), “科學의 朝鮮, 理學發達의 必要를 論함”(동아일보, 1920/04/29), “迷信은 亡國의 禍源”(동아일보,

1920/08/13), “미신과 과학”(동아일보, 1927/07/22), “迷信打破”(동아일보, 1929/02/25)와 같은 기사 제목만으로도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4. 그들은 바람이 부는 것을 볼 때마다 바람의 위력에 놀랐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그러했고 죽는 것, 벼락, 비, 홍수, 바다, 강 등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에 모든 현상은 자기 자신들보다 더 유력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보다 높은 능력을 가진 것들, 즉 귀신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람이 겁이 나면 바람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병이 들면 약을 (중략) 미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심한 예로는 귀신의 뜻을 맞춰 준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지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5. 그러나 인류사회는 발달하여 왔습니다. 사람의 총명과 지식은 철 사이 없이 진보하였습니다(동아일보, 1927/08/02).

말은 쉽게 미신이라고 하지만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세기동안 사회를 지배해 왔고 과학사상이 발달된 지금에 있어서도 과학적 교육을 받았다는 先進文明人 중에도 有形無形의 유사한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허다한 일이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된 사상에 잠겨 있었으며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몽매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개탄할 노릇이다. 모름지기 지금은 20세기 과학문명시대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점쟁이, 무녀들의 도약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수치이다. (동아일보, 1927/03/18).

위의 기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은 미신이라는 말이 ‘과학’과 ‘발달’을 막는 요인이며, ‘과학’, ‘문명’과 대치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신은 비과학적이며 미개한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미신은 ‘과학’과 ‘발달’에 배치되는 비합리성, 전근대성으로 인해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시기에 미신으로 인한 사기, 살인미수, 시체 유기나 훼손, 납치, 방화 등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근대 미디어가 그러한 사건들

을 클로즈업함으로써 미신이라는 말을 과학과 대치시켰다는 이야기도 성립한다. 과학의 이름으로 전통적 샤머니즘이 ‘미신’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이 신문기사 안에는 존재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신 자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미신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무속통제의 기초작업은 1920년대 일부의 관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은 조선을 장기간 통치하기 위한 일본의 열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최석영, 1996).

물론,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는 ‘미신’과 가정신앙으로서의 ‘미신’은 그 결이 조금 다르지만,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범주에 묶여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샤머니즘이 근대에 의해 발견되고 쫓겨난 것은 비슷한 시기, 환동해지역 전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샤머니즘이 사회주의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탄압했다. 용한 샤먼은 처형하거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주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시베리아의 샤먼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이상화 2011, 200-208).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속, 점신과 관련된 샤머니즘은 사라져갔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당, 샤먼이 없어도 액을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는 행위들은 아직도 가정신앙의 형태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근대 이전에는 너무도 당연시되었던 민간신앙과, 그 영향권하에 있었던 전통적 생활방식이 모두 비과학적 미신으로 인식되었다.

오랜 세월 미신은 기술문명 이전부터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었고 현재도 그 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이버 무속공간들이 그 사실을 반증해 줄 것이다. 한편으로, 미신이라 불리는 행위 중에는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생활의 지혜가 묻어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사회에 해악이 되지 않는 풍속도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 가능한 것도 많다. 무엇보다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들이 오랜 세월동안 사람이 표현해 온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V. 결론

일리노이주립대학의 언어-문학-문화학과 학장을 지낸 다니엘 에버렛(Daniel L. Everett)은 30년의 세월을 아마존에서 보냈다. 그의 임무는 피다한 인디언을 개종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결코 피다한들을 개종시킬 수 없었다. 피다한 사람들에게 모든 교리와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하찮은 ‘미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사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으며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다.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인이 있어도 그걸 돕지 않았다. 왜냐하면 돕는다 해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 자는 곧 죽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물질문명에 극단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미신과 종교가 전도되는 역설적 상황을 다름 아닌 피다한 부족이 보여주고 있다(그들은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원시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다니엘은 ‘오늘날 어떤 한 나라(혹은 인종)의 문화는 분명히 지나온 과거가 축적된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문화를 과거 특정 전통문화의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다니엘 에버렛 2009, 154).

언어학자이며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서구문화가 유럽과 북미대륙에서 세계 전역으로 그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서구문화의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향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거나 자신처럼 되고 싶어한다고 믿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12, 40-41). 헬레나는 본인이 체류했던 라다크에서 환자를 영력으로 치료하는 샤먼, ‘라바’가 환자의 몸에서 검은 액체를 빨아 내뱉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헬레나에 의하면, 라다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라다크 사람들은 자존감 있고 강인한 부족이었는데, 이들이 서구문명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들의 언어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이른바 ‘개발’이 사람들에게 인위적인 결핍감을 느끼게 한 것, 강요된 서구 표준 이미지의 추구가 고

유문화와 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나타낸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12, 242-243).

시베리아는 미신의 발견과 타과의 전제, 또는 대칭 개념이었던 ‘문명’과 ‘과학’이, 샤머니즘이 몰려난 자리를 채운 가장 좋은 예 중의 하나이다. 샤먼이 사라진 자리에 몰려든 문명은 시베리아를 도시화하고 현대화시켰다. 유목생활을 하던 시절, 순록을 사육하던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순록 공장에 전문 사냥꾼으로 고용되어 순록을 닦치는 대로 죽이고 있다. 예전에는 필요한 때에만 하던 사냥이 이제는 직업이 된 것이다. 선사시대부터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유기물들이 석유를 만들어낸 툰드라 땅에는 이제 석유회사들이 세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석유회사들이 상품을 걸고 여는 순록축제에 유목민들이 참여한다. 강의 오염은 툰드라 사람들과 순록들에게서 물을 빼앗아 간다. 생존을 위해서만 순록을 잡고, 순록의 영혼을 위로하던 그들이 지금은 한 달 이상 사냥터에 머물며 순록을 겨냥한다. 샤먼과 더불어 자연을 아끼고 그 안의 생명들을 소중히 하던 정신까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교류가 없어진 툰드라에서 순록 사육도 유목민도 점점 자취를 감추는 것은 유전과 도시가 들어서고, 순록털매 대신 자동차나 기차가 도입돼 달리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것이 미신을 몰아낸 문명의 풍경인 것이다(이상화 2011, 239-254).

현재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 내지 놀이로 생각하는 액막이 풍속, 혹은 가정신앙들은 사실 그것들이 믿음이던 시대에는 그만큼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 참고문헌 |

- 권철근 (2007). “『롤리타』, 루살카, 그리고 창세기.” 『외국문학연구』. 제26호, pp. 9-31.
- 김열규 (2000). “동북아 문화의 정체성: 샤머니즘의 처지에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0.
- 안광선 (2012). “동아시아 단오 액막이 풍속 비교 연구.” 『인문연구』.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03.
- 이건욱 (2003). “러시아 귀신 루살카 연구.” 『한국무속학』. 제7호, 한국무속학회. pp. 197-209.
- 이상화 (2011). 『최후의 튜트라』. 형설Life.
- 이성동·박홍현·김동원·방병호 (2000) “쑥의 생리활성 물질과 이용.”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제13권. 제5호. 한국식품영양학회, pp. 498-500.
- 이제영 (2008). 『매스미디어와 미신』. 한국학술정보. 2008.
- 최석영 (1996). “일제 식민지기 무속조사와 식민정책.” 『일본학연보』. 제7집, pp. 163-198.
- 다니엘 에버렛 (2009). 『잠들면 안돼, 거기 뱀이 있어』. 윤영삼 역. 쿠리에, p. 154.
- 마크 클란스키 (2003). 『소금』. 이창식 역. 세종서적.
- 발터 게를라흐 (2009). 『미신사전』. 정명선 역. 을유문화사. 2009.
- 일연 (2009). 『완역 삼국유사』. 박성규 역. 서정시학. 2009.
- 조안나 러스 · 잭 자이프스 편. “루살카 혹은 보헤미아 해변.” 『세상으로의 첫 여행을 떠날 때 읽는 동화』. 김경숙 역. 사이. 2009.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12). 『오래된 미래』. 양희승 역. 중앙Books.
- 孫衛春 (2007). “陝北療百病風俗的地域含義探析.” 『延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 第1期. 延安大學, pp. 105-107.
- 鈴木稔 (2009). “くすりと民俗2：疫病追い出す節分.” 『月刊漢方療法』. 第12卷. 第11号, pp. 74-76.
- 宮崎駿 (2001). 『千と千尋の神隠し』(DVD). スタジオ・ジブリ.
- 『동아일보』. 1920년 4월 29일; 1920년 8월 13일; 1929년 2월 25일; 1927년 7월 22일; 1927년 8월 2일.

| 논문투고일 : 2014년 02월 28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3월 03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1 (2014)

A Study of the Folk-beliefs

Seok-Hee Kim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hee Univ.)

Shamanism, the object of fear as well as comfort for humans, was ousted under the name of superstition, but it offered to the public the consolation that science could not and it intuitively reached the horizon that modern science could not. The behaviors, such as 'Gohsooreh' in Korea, salt throwing into a fire in China, 'Mamemaki' in Japan and Rusalka expelling with wormwood in Russia, now remain only in the realm of customs, but still present themselves in numerous movies and literary works.

These shamanism behaviors that may have been initiated for the purpose of blocking misfortunes or ghosts, however, do not belong to the area of shamanism any longer. They exist in the expressions of common feelings or in the contents of cultural traditions. Superstitions were not superstitions in the beginning. Before modern times, they were a part of shamanism that was fulfilled under the social allowance and agreement, and a kind of tradition to communicate and sympathize with nature. But since then, in the wake of rapid westernization, the shamanism in the East Sea Rim was regarded as the antonym of 'science' and 'civilization'. It became the object of 'eradication' and hence disappeared fast.

A series of 'developments', including recent oil development in Siberia, are good examples in which 'civilization' replaces shamanism. The fact that shamanism meant communication with nature is being

witnessed in the scenes where those who have lived a nomadic life quite long with reindeer are turned into the nature's destroyer in the absence of shamanism. Along with shamans, the spirit of loving nature and treasuring the lives within is in danger of disappearance.

- Key words: Discovery of Superstition, Eradication of Superstition, Blocking Misfortunes, Folk-beliefs, East Sea Rim